

달콤한 외로움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장수영

I

박사학위 혹은 교수라는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불쑥 던지는 어려운 질문에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사 학위가 무슨 도사 자격증이라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사실 박사의 “박” 자는 “넓다”는 뜻이지만, 실은 극도로 좁은 분야만 아는 것이 “박사”이다. 그러니,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 솔직한 대답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일 수 밖에 없다. 겸손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모른다.

물론, 현대 학문이 고도로 세분화 되었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현대 과학 기술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으니, 내 좁은 학문적 식견도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 우길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가까운 분야도 도통 모르는 내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다. 한때는 “학제간 연구”란 것이 나의 답답함을 풀어줄 해답이 아닌가 생각해 본적도 있다. 하지만 학제간 연구도 언뜻 보기에는 여러 학문 분야가 경계를 넘어 통합되는 것인 듯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확정된 명확한 목표의 효과적 성취”를 위해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합집산”하는 것일 뿐이다. 때론 답답한 마음에 큰 맘먹고 다른 학문 분야에 기웃거리 보기도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해 자괴감만 더할 뿐이다.

그런데, 내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다. 그것은, 같은 과에 속한 같은 분야 전문가들도 내가 하는 연구에 대해 잘 모르고, 나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조금 답답하다는 것 말고는, 아주 편안하고, 달콤하게까지 느껴진다는 역설적 사실이다.

II

사단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의 맛을 슬그머니 빼앗아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사랑, 우정, 존경, 신뢰 같은 소중한 가치가 맛을 잃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어 지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에게는 한층 더, 잘 숨겨진 교묘한 전략이 하나 더 있다. 그 공교한 속임수에 걸리면, 의사 소통이 단절되고 작은 세계에 고립되는 것이 고통스럽기 보다는 편안해진다. 맛이 없어야 할 외로움이 은근히 달콤해지는 것이다.

내 연구실에 속한 서너 명의 대학원생들과 갖는 “땀 미팅”에서, 내 의지는 곧 법이다. 내 연구실은 나의 “어질음”에 평화가, 나의 “광포함”에 두려움이 있는 나만의 왕국이고, 난 문자 그대로 “왕”인 것이다. 내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는 파편화된 좁은 영역이지만, 내가 왕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토이다. 아무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 조금 외롭긴 해도, 그 외로움은 달콤하다.

예로부터 외로운 선비의 길을 “독야청청”이라 수식했으니, 그까짓 외로움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깊이 파야 심오한 진리를 캐어낼 수 있는 법이니, 진리에 가까울수록 나 혼자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 그러나, 좁은 나만의 영역에서, 달콤함에 조금 빠진들 그 무슨 부끄러움일까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III

하나님은 자신이 삼위일체 공동체(창세기1:26, 3:22, 11:7)이시다. 그렇기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이 외롭게 “독처함”이 (창세기 2:18)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고서야 “좋았더라” 하셨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 형상을 보존 못한 타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 (스바냐 3:17) 그렇기에, 공동체를 이루고,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믿음의 드러남이다. (사도행전 2:46)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이다. (히브리서 10:25)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자에 합당한 학자의 길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아, 탁월하고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고, 그 깨달음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리라. 그러나, 돌아보면, 지내온 날들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하다.

좀더 효과적으로, 좀더 신속하게, 한마디로, “빨리빨리”가 지고의 가치인,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멈추는 것”이 미덕일 수는 없다. 그렇기에, 어서어서 논문 한편, 과제 하나 더하는 것이 미덕이다. 승진, 승급은 빠를수록 인정 받는다. 그러나,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왕국”을 떠나, 타 분야 기독교인 학자를 찾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에 시간을 쓰는 것은 “외도”이고 “낭비”로만 생각했던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렇기에, 기독교 학자들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로의 초대 앞에, 나는 “연구과제”, “논문”, “학회”, “출장” 등의 사유들을 꺼내 보이며, 내 삶이 얼마나 “멈출 수 없는 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또 은근히 남들에게 과시하는 것을 즐기곤 했다.

IV

기독교적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기독교인에게 가장 합당한 연구과제를 선택하는 일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좀더 커다란 그림을 보아야 가능하다. 그 큰 그림을 본다는 것은, 가치를 논하는 철학과 윤리학, 가격 결정 체계를 설명하는 정치경제학, 그리고 지켜져야 할 정의를 규정하는 법학 등, 다양한 전문성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나만의 “왕국”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외로움의 달콤함에 취해있던 내게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젠, 나만의 “왕국”에 거하는 달콤함에서 떠나야 한다. 기독교인 철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법학자와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용한 시간만큼 그 대상을 위해 죽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무엇을 위해 죽는 것이야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우는 지고의 사랑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장으로 학문을 하고, 하루하루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을 좀더 자주 “멈추고”, 좀더 자주 나의 “왕국”을 떠나 주님의 피로 묶으신 공동체 안에서 기독인 학자들을 만나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더 이상 외로움의 달콤함에 취해 있을 수 없다. 다음 기학연 모임엔 꼭 참석하여 과학 기술 분야뿐 아니라, 타 분야 학자들과도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다짐해본다.